

동부(012030)

새 브랜드에 대한 수익원이 생기다

■ 동부그룹의 사업지주회사

동사는 지난 2010년 11월 동부정밀과 동부CNI가 합병하여 출범되었으며, SI 및 무역 사업 등을 영위하면서 동부하이텍 12.9%, 동부메탈 7.8%, 동부라이텍 11.0% 동부대우전자 6.6% 등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동부화재가 동부증권 19.9%, 동부생명 99.8% 등 그룹 금융계열사들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어 사실상 그룹 내 금융지주회사이다.

한편, 주주는 김남호 18.6%를 비롯하여, 김준기 12.4%, 김주원 10.2%, 자사주 5.6%, 동부문화재단 4.7%, 김정희 외 특수관계인 2.6%, 기타 46.0% 등으로 분포되어 있다.

■ 브랜드 로열티 받게 되면 이익의 성장성 및 지속성 부각 될 듯

동부그룹은 그룹의 모태 회사였던 동부건설을 비롯해 동부제철, 동부익스프레스 등 주요 계열사가 줄줄이 매각된 후에도 동부라는 이름을 사용해왔으나 그룹의 정체성을 재정립하는 차원에서 사명 변경을 논의해 왔다. 더군다나 동부의 상표권을 보유한 동부건설이 사모펀드인 키스톤프라이빗에쿼티에 매각되었다.

이에 따라 동부는 DB를 활용한 로고를 제작해 특허청에 상표를 출원한 상태로 상표권 등록 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 상표권 등록이 완료되면 동부화재, 동부생명, 동부증권, 동부자산운용, 동부저축은행, 동부캐피탈 등 금융계열사와 더불어 동부하이텍, 동부라이텍 등 제조업 계열사 등도 사명을 변경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동사는 DB에 대한 브랜드를 소유하고 있는 주체이기 때문에 상표권 등록 완료 이후 일정기간을 거쳐 계열사로부터 브랜드 로열티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계열사 등의 매출수준을 고려할 때 동사 현재 영업이익을 뛰어넘는 수준의 브랜드 로열티가 들어올 것으로 예상될 뿐만 아니라 지속성 등으로 인하여 동사 기업가치의 상승이 기대된다. 또한 동부대우전자의 매각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매각 성공 시 동사 현금흐름 개선이 예상된다.

한편, 동사 밸류에이션의 경우 올해 기준으로 PBR 1.0배 수준이기 때문에 브랜드 로열티로 인한 이익의 성장성 및 현금흐름 개선 등을 고려할 때 향후 동사 주가의 양호한 흐름이 예상된다.

지주/ Mid-Small Cap

이상현 (2122-9198) value3@hi-ib.com

조경진 (2122-9209) kjcho@hi-ib.com

NR

액면가	500원
종가(2017/09/22)	833원

Stock Indicator

자본금	91.0십억원
발행주식수	18,213만주
시가총액	152십억원
외국인지분율	2.4%
배당금(2016)	-원
EPS(2016)	-원
BPS(2016)	989원
ROE(2016)	-%
52주 주가	678~856원
60일평균거래량	685,401주
60일평균거래대금	0.5십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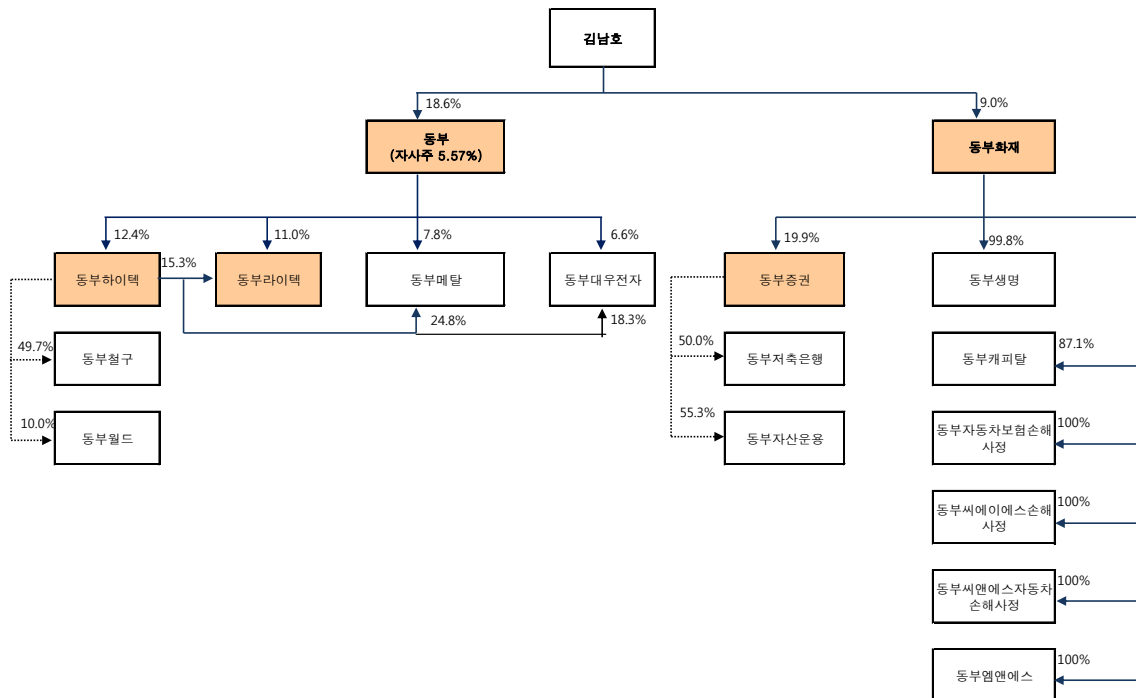
Price Trend



FY	매출액 (억원)	영업이익 (억원)	세전이익 (억원)	순이익 (억원)	지배주주순이익 (억원)	EPS (원)	PER (배)	PBR (배)	ROE (%)	부채비율 (%)
2013	4,429	108	-872	-638	-638	-	-	0.3	-	159.2
2014	2,542	-134	-1,623	-1,245	-1,245	-	-	0.3	-	231.8
2015	2,037	98	-342	132	132	72	6.9	0.5	9.6	66.6
2016	2,048	109	-143	-207	-207	-	-	0.7	-	4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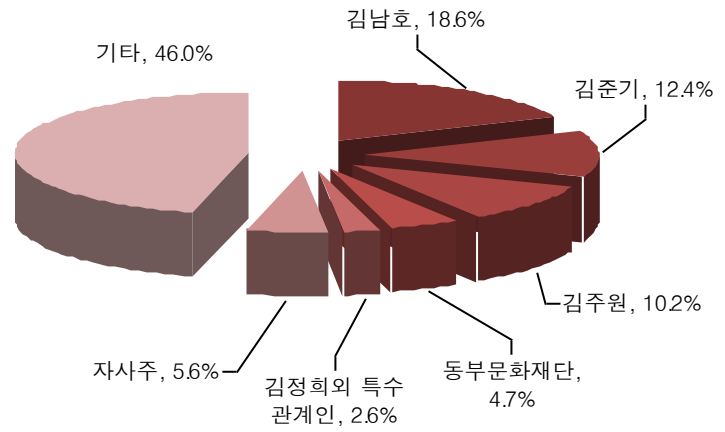
자료: 동부, 하이투자증권

<그림 1> 동부그룹 지배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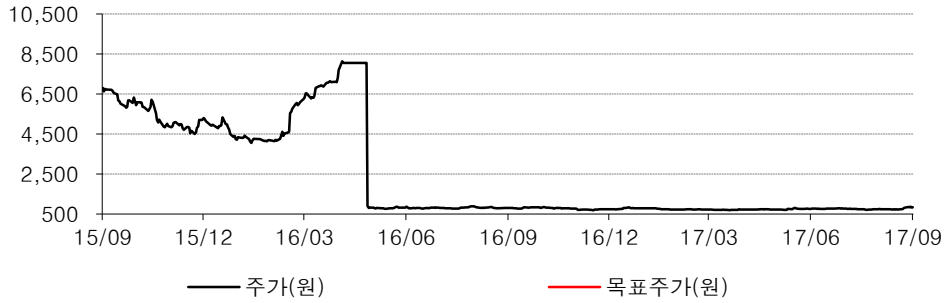
자료: 각 사 사업보고서, 하이투자증권

<그림 2> 주주분포(2017년 6월 30일 기준)



자료: 동부, 하이투자증권

최근 2년간 투자의견 변동 내역 및 목표주가 추이(동부)



일자	투자의견	목표주가(원)	목표주가 대상시점	괴리율	
				평균주가대비	최고(최저)주가대비
2017-09-25	NR				

Compliance notice

당 보고서 공표일 기준으로 해당 기업과 관련하여,

- ▶ 회사는 해당 종목을 1%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 금융투자분석사와 그 배우자는 해당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 당 보고서는 기관투자가 및 제 3자에게 E-mail등을 통하여 사전에 배포된 사실이 없습니다.
- ▶ 회사는 6개월간 해당 기업의 유가증권 발행과 관련 주관사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 ▶ 당 보고서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 이상현, 조경진\)](#)

본 분석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따라서, 본 자료에 의한 투자자의 투자결과에 대해 어떠한 목적의 증빙자료로도 사용될 수 없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작성자 및 당사의 허가 없이 전재, 복사 또는 대여될 수 없습니다. 무단전재 등으로 인한 분쟁발생시 법적 책임이 있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1. 종목추천 투자등급 (추천일 기준 증가대비 3등급) 종목투자의견은 향후 12개월간 추천일 증가대비 해당종목의 예상 목표수익률을 의미함.(2017년 7월 1일부터 적용)

- Buy(매수): 추천일 증가대비 +15%이상
- Hold(보유): 추천일 증가대비 -15% ~ 15% 내외 등락
- Sell(매도): 추천일 증가대비 -15%이상

2. 산업추천 투자등급 (시가총액기준 산업별 시장비중대비 보유비중의 변화를 추천하는 것임)

- Overweight(비중확대), - Neutral (중립), - Underweight (비중축소)

하이투자증권 투자비용 등급 공시 2017-06-30 기준

구분	매수	중립(보유)	매도
투자의견 비율(%)	89.2%	10.8%	-